

사교육 및 학업노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김진영¹⁾·이기종²⁾

요약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자료를 사용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탐색되었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과 사교육이 선정되었다.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으로는 학교에서의 수업태도와 혼자 공부하는 시간, 사교육은 학습자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는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이 선정되었다. 변수간의 관계는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으로 탐색되었으며, SPSS18.0과 LISREL8.8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사교육 단독으로, 개인의 학업노력만으로, 그리고 사교육 및 개인의 학업노력의 결합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려 한 모형 각각은 모두 수집된 자료에 합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학교성적의 27.8%가 사교육과 개인의 학업노력으로 설명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 중 수업태도가 학교성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의 경우는 29.5%가 사교육과 개인의 학업노력으로 설명되며, 그 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수능성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I. 서론

한국사회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크다. 그것은 학업성취가 사회적 선발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어왔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족 내 요인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부모의 관심 등을 중심 하는 연구(구인회, 2003; 김경근, 2006; 김태균, 2008)와 학교 내 특성 즉 학교풍토와 같은 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김성식, 2007)에 대한 연구, 그 외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교육과 관련된 학업성취 효과에 대한 연구(이명현, 김진영, 2005) 등이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결정되지만, 결국은 학생의 학습활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적 배경이나 학교의 교육활동도 학생의 학습활동으로 흡수되어 학업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의 학습 특성에 따라 학교성적, 나

1) 우송대학교 초빙교수

2) 국민대학교 교수

아가 수능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성적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보면, 김진영, 유민경(2005)은 시간이용패턴, 공부시간 결정요인, 시간활용과 학업성취에 대해 다루고, 이중 학업성취부분에서 고3 수능성적을 이용하여 학습시간, 과외시간, 관심, 부모의 최종학력 등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채창균(2007)은 EBS수능강의와 사교육비 지출변화 관련성과 과목별 수능점수 회귀분석을 통해 EBS수강이 수능점수와 유의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진미(2009)는 수능성적에 미치는 여러 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언어영역에서는 지역별 점수 차이가 없지만 수리영역과 외국어 영역에서는 지역별로 광역시가 서울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점수가 높았으며,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혼자 학습하는 시간이 길수록, 흥미가 클수록 수능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이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성실 등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과 그 부모의 경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 효과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교육과 개인적인 노력 중 어떠한 변인이 학교성적, 더 나아가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우리사회의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노력과 사교육을 선정하였다.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수능성적과 내신이 적용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인 노력과 사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모형1은 사교육과 학업성취모형, 모형2는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과 학업성취를 모형, 모형3은 사교육 및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과 학업성취모형이다.

II.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의 중학생 패널 2차~4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3학년에 이르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답한 패널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와 특히 사교육비와 학교성적 및 수능성적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이 전혀 없는 사례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례는 296명이다.

이들의 수업태도,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 월 사교육비, 학교성적, 수능성적을 분석하였다. 수업태도는 고1부터 고3까지 학습자가 수업 중 질문, 수업에 집중, 숙제, 복습, 예습에 대한 5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점수를 합한 값의 평균이고, 공부시간은 고1부터 고3까지 주당 혼자서 공부한 시간을 합한 값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고1학년에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 5시간이고 2학년에 7시간, 3학년에 8시간이었다면 이 학생의 공부시간은 20이다. 사교육비는 고1부터 고3까지 월 평균 사교육비를 합한 값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고1학년에 사교육비로 평균 15만원, 고2학년에 20만원, 고3학년에 3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학생의 사교육은 65이다. 학교성적은 고1부터 고3까지 국어, 영어, 수학의 9등급 평균성적이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등급비율을 역산하여 투입하였다. 수능성적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의 9등급 성적의 평균이다. 수능성적 역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성적인 등급비율을 역산하여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변수를 요약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수 내용

변수 명	설문내용
수업태도	고1, 고2, 고3 수업태도(5문항 :수업 중 질문하기, 수업에 집중하기, 숙제하기, 예습하기, 복습하기 5점 척도)의 평균 합
공부시간	고1, 고2, 고3 각 학년의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합
사교육비	고1, 고2, 고3 각 학년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합
학교성적	고1, 고2, 고3 국어, 영어, 수학 9등급 역산 성적합의 평균
수능성적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 9등급 성적 역산

Ⅲ.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프로그램과 LISREL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에는 SPSS18.0, 경로분석에는 LISREL8.8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기술통계

자료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교육비, 수업태도, 공부시간, 학교성적, 수능성적 기술통계

	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수업태도	296	3.80	12.40	8.73	1.28	.06	.14	.25	.28
공부시간	296	.00	135.00	35.77	24.57	.90	.14	.57	.28
사교육비	296	1.00	400.00	90.63	68.95	1.46	.14	2.78	.28
학교성적	296	2.33	9.00	5.83	1.22	.09	.14	.02	.28
수능성적	296	2.33	9.00	5.17	1.45	.41	.14	-.15	.28

〈표 2〉는 5개 변수의 기술 통계치이다. 먼저 개별 변수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포의 편포도와 첨도를 확인해 본 결과 사교육비의 편포도와 첨도는 각각 1.46과 2.78이고, 수업태도의 편포도와 첨도는 각각 .06과 .25이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각각 .90과 .57이며, 학교성적의 편포도와 첨도는 각각 .09와 .14이다. 그리고 수능성적의 편포도와 첨도는 각각 .41과 -.15였다. 사교육비를 제외하고는 편포도 및 첨도가 정상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단일변수분포가 정상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다중변수분포에서의 정상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아래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크기는 .120~.487이다.

〈표 3〉 공부시간, 수업태도, 사교육비, 학교성적, 수능성적 간의 상관관계

	공부시간	수업태도	사교육비	학교성적	수능성적
공부시간	1.000				
수업태도	.472**	1.000			
사교육비	.129*	.120*	1.000		
학교성적	.408**	.449**	.235**	1.000	
수능성적	.384**	.266**	.250**	.487**	1.000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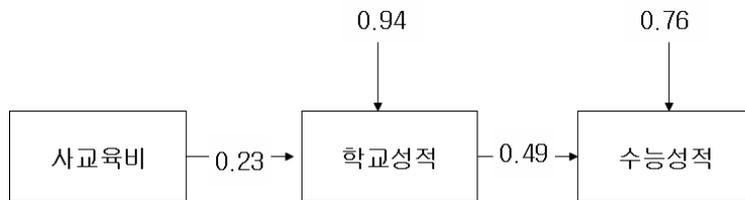
수능성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이 학교성적이고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수능점수도 높아진다(김진미, 2009)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각 변수 간 상관계수에 기초해 수능성적에서 각각의 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학교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정도로 가장 높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4.7%, 수업태도는 7.07%,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25%이었다. 학업성취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이었다. 이는 혼자 공부하는 학습활동이 학업성취의 초기값과 변화값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이기중, 광수란, 2009)와 일치한 결과이다. 반면, 사교육비의 지출이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본 연구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된 사교육과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교육만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경로모형(모형1), 학업을 위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경로모형(모형2), 사교육과 개인의 학업노력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경로모형(모형3)을 설정하였다.

1) 사교육과 학업성취의 경로분석

사교육만으로 학교성적 및 수능성적의 경로를 분석한 모형1의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교육과 학업성취의 경로분석(모형1)

[그림 1]에서 설정된 모형의 전체모형 적합도 평가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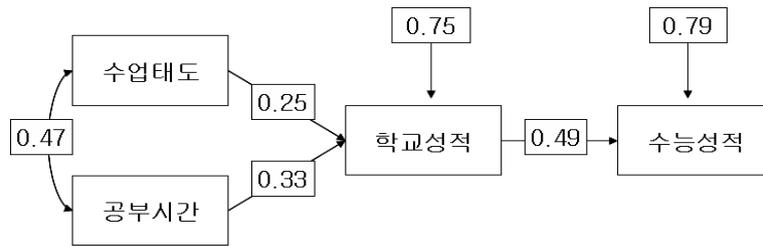
<표 4> 사교육과 학업성취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

연구모형	χ^2	df	RMR	GFI	CFI	RMSEA
	7.52(P=.006)	1	.055	.980	.930	.149

이 경로모형의 χ^2 의 p값이 .006으로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평가지표는 만족할 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형은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표 4>에서 제시된 적합도 평가지표 외에 학교성적의 방해오차 값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있다.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의 방해오차는 각각 .94, .96이다. 따라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설명해주는 제3의 변수가 [그림 1]의 모형에 포함되어야만 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그림 1]의 모형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업에 대한 개인적 노력과 학업성취의 경로분석

모형1이 적합하지 않아 학업성취를 위한 개인의 노력을 측정한 변수인 수업태도와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학교성적 및 수능성적을 설명하려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학업에 대한 개인적 노력과 학업성취의 경로분석(모형2)

모형2의 전체모형 적합도 평가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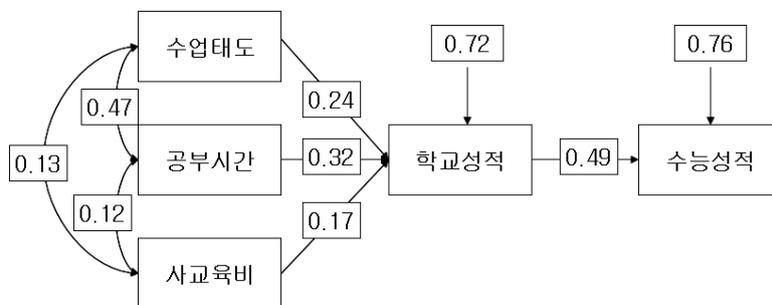
<표 5> 학업에 대한 개인적 노력과 학업성취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성 평가 결과

연구모형	χ^2	df	RMR	GFI	CFI	RMSEA
	16.09(P=.000)	2	.060	.070	.950	.155

이 경로모형의 χ^2 의 p값이 .000으로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평가지표도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형2도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표 5>에 제시된 평가지표 외에도 방해오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모형에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의 방해오차가 각각 .75, .79이다. 따라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설명해 주는 제3의 변수가 [그림 2]의 모형에 포함되어야만 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그림 2]의 모형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교육 및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과 학업성취의 경로분석

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노력과 사교육을 결합하여 경로를 분석한 모형3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사교육과 학업성취의 경로분석(모형3)

[그림 3]과 같이 사교육 및 개인의 학업노력으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설명을 하려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개인의 학업에 대한 노력 및 사교육과 학업성취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성 평가 결과

연구모형	χ^2	df	RMR	GFI	CFI	RMSEA
	22.89(.000)	3	.061	.970	.940	.150

이 경로모형의 χ^2 의 p값이 .000으로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평가지표도 양호한 상태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형3 역시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표 6>에서 제시된 적합도 평가지표 외에도 학업성취의 방해오차를 확인한 값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의 방해오차는 각각 .72, .76이다. 따라서 학교성적의 경우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 이 외에 학교성적을 설명하는 제3의 변수의 영향력이 72%이고, 수능의 경우도 76%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변수 외에 영향력 있는 제3의 변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업성취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앞에서 살펴 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모형1, 모형2, 모형3의 경로분석 결과 모형이 양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업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교성적에 대한 회귀분석

학교성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7>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은 모든 독립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한 것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표 7> 학교성적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296)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22.217	3	40.739	37.486	.000
잔차	317.337	292	7.087		
합계	439.554	295			

$R^2(\text{adj. } R^2)=.278(.271)$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비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37.49,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학교성적에 대해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F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도출된 것은 표본크기가 296이나 되는 데 이유가 있다. 표본크기가 크기 때문에 오차분산 추정량이 작아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빚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적의 27.8%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8> 학교성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296)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수업태도	.302	.054	.317	7.614	.000
공부시간	.012	.003	.237	4.187	.000
사교육비	.003	.001	.166	3.306	.001
(상수)	2.510	.436		5.756	.000

<표 8>은 개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05수준에서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수업태도($t=7.614$, $p=.000$), 공부시간($t=4.187$, $p=.000$), 사교육비($t=3.306$, $p=.001$)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앞서도 언급된 표본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데서 기인한 것이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비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단계적 선택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사교육비가 회귀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능성적에 대한 회귀분석

수능성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분산분석표는 <표 9>와 같다.

<표 9> 수능성적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296)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20.818	3	40.273	23.590	.000
잔차	498.502	292	1.707		
합계	619.320	295			

$R^2(\text{adj. } R^2)=.195(.187)$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비가 포함된 모형의 F통계값은 23.59,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05에서 수능성적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만족도 총변화량의 19.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 10〉 수능성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296)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수업태도	.106	.067	.094	1.578	.116
공부시간	.019	.004	.314	5.251	.000
사교육비	.004	.001	.198	3.740	.000
(상수)	3.206	.547		5.865	.000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의수준 .05에서 수능성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공부시간($t=5.251$, $p=0.000$), 사교육비($t=3.740$, $p=.000$), 수업태도($t=1.578$, $p=.116$)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공부시간, 사교육비, 수업태도의 순으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모형은 모두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만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경로모형(모형1), 학업을 위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경로모형(모형2), 사교육과 개인의 학업노력으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경로모형(모형3) 모두가 양호하지 않은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사교육만으로 학업성취의 경로를 분석한 모형에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의 방해오차가 각각 .94, .76이었다. 이것은 학교성적의 94%, 수능성적의 76%를 사교육이 아닌 제3의 변수가 설명한다는 것이다. 학업을 위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학업성취의 경로를 분석한 모형에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의 방해오차가 각각 .75, .79이었다. 즉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결정하는데 각각 75%, 79%가 수업태도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제3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사교육 및 학업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학업성취를 분석한 모형에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의 방해오차가 각각 .72, .76이었다. 이것은 학교성적 72%와 수능성적의 76%가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이 아닌 제3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업성취인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은 수업태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 사교육 이외 강력한 제3의 변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학교성적 및 수능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능이나 초인지, 공부하는 습관,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학습방법 등과 같은 다른 제3의 변수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개인적인 노력과 사교육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 학교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업태도였다.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내신의 28%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수업태도($t=5.614$, $p=0.000$), 공부시간($t=4.187$, $p=0.000$), 사교육($t=3.306$, $p=.001$)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 사교육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능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수능성적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기여도를 보면 수업태도, 공부시간, 사교육은 수능성적의 20%정도를 설명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t=5.251$, $p=.000$)이었고 다음은 사교육($t=3.740$, $p=.000$), 수업태도($t=1.578$, $p=.116$) 순이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고교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업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수능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사교육은 학교성적과 수능성적 어느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교내신 성적에는 수업태도의 기여도가 높고, 수능성적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사교육보다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학교성적 및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교육보다 성실한 수업태도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기대기보다는 성실한 수업태도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수업태도가 수능성적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것은 평소 수업시간에 질문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숙제를 잘하고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은 배운 교과범위 내에서 시험을 치르는 내신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수능에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들이 내신관리와 수능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학생들로 하여금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기대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수업시간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시험과 수능시험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김경근. 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6(1), 27-49.
- 김성식. 2007 「중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 풍토변인의 영향 분석: 평균성취 수준과 학생 간 격차와 관련하여」. 한국교육. 34(2), 27-49.
- 김진미. 2009. 「수능점수를 이용한 회기모형 비교」. 제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진영, 유민경. 2005.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시간활용과 그 성과」.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태균. 2008.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학업성취와의 관계: ARCL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59-80.
- 이기종, 곽수란. 2009.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공부시간 효과 추정」. 제5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명현, 김진영. 2005 「사교육(과외)가 학업성취도 향상효과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채창균. 2007. 「EBS 수능강의 참여 실태와 효과 분석」.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Abstract ❖

Influences of private tutoring and individual schoolwork efforts on scholastic achievements

Kim Jinyoung, Rhee Kijong

Using a sample from the KEEP,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and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individual schoolwork efforts in combin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analyzed were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learning attitudes(in school), self-regulated learning hours, school achievements,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ies with LISREL 8.8 and SPSS18.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f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nd individual schoolwork efforts on the school achievements and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ies. School achievements were mainly explained by the learning attitudes in school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ies were largely dependent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hours.

Key word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learning attitudes, self-regulated learning hours, school achievements, college scholastic abilities.